

# 일본 의장법(意匠法)에 의한 ‘건축물 디자인’의 법적보호

권 지 현 \*

- I. 서론
- II. 건축물의 디자인보호제도의 도입
- III. 건축물디자인의 출원·등록과 심사기준
- IV. 건축물 보호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V. 결론

## 국문초록

일본정부는 일본산업구조심의회(日本産業構造審議会)의 정책제언으로 그동안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는 건축물을 의장권(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의장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의장법이 시행된 후 2년간 건축물의장 및 내장의장의 출원은 1,134건, 등록은 767건으로 67.7%가 등록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물품의 의장(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축물을 물품과 같은 취지로 의장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외관을 의장으로 도시한 ‘건축의장 도면’을 건축의장으로 보호하고 있다.

의장법은 건축물의 형상 및 모양, 색채를 외관으로 하는 ‘건축의장 도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본 저작권법에는 건축물에 관한 도면(‘건축설계도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건축의장 도면’은 저작권법상 건축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장법을 개정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

\*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다. 그러나 도면의 관점에서만 보면, 보호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양자의 각 도면에 의하여 완성된 건축물은 동일할 수 있다. 따라서 양법의 보호대상인 건축물을 기준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축물에 의장권과 저작권의 이중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권리행사에서도 양법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 일본의장법과 같이 건축물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일본의 문제점, 우리나라 저작권법과의 충돌문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산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미국특허법(디자인특허) 및 유럽공동체디자인규칙(CDR) 등을 함께 분석한 후에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핵심어** 건축물, 건축물디자인, 내장디자인, 건축저작물, 건축설계도면

## I. 서론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일본 의장법(우리의 “디자인보호법”에 해당)에는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건축물」을 의장(意匠, 이하 “디자인”이라고 한다)의 범위에 속하는 물품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건축물의장(建築物の意匠, 이하 “건축물디자인”이라 한다) 및 건축물의 공간(空間)을 나타내는 내장의장(内装の意匠, 이하 “내장디자인”이라 한다)을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여<sup>1)</sup> 시행한지 2년이 경과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건축물디자인 및 그 건축물내부의 내장디자인을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정책적 근거는 일본산업구조심의회(지적재산분과회 의장제도 소위원회)의 정책제언에 따른 것이다. 즉 동 소위원회는 “산업경쟁력과 디자인을 생각하는 연구회”를 설치하고, 동 소위원회에서는 “「디자인경영」선언<sup>2)</sup>”이라는 정책제언을 하였으며, 그 별첨자료로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의장제도의 재검토에

1) 일본 의장법 제2조 및 제8조의2.

2) 日本經濟産業省・特許庁 産業競争力とデザインを考える研究会, 『デザイン経営』宣言, 2018. 5. 23. [https://www.meti.go.jp/report/whitepaper/data/pdf/20180523001\\_01.pdf](https://www.meti.go.jp/report/whitepaper/data/pdf/20180523001_01.pdf), 검색일: 2022. 8. 5.

대하여<sup>3)</sup>라는 정책제언이 공표되었고, 일본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장법에 건축물 디자인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정부가 건축물디자인 및 그 건축물살내의 내장디자인을 의장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이유를 보면, (i) 최근 물건의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일(경험)의 디자인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점포 등의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여 독창적인 디자인 창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ii) 최근 건축물에 대해서도 브랜드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iii) 최근 오피스 가구·관련 기기를 취급하는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이용하면서 특징적인 오피스 디자인을 설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업의「디자인경영」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의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디자인 및 그 건축물의 내장디자인을 의장권(디자인보호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sup>4)5)</sup> 현재 의장법에 의하여 건축물디자인 및 내장디자인이 출원되어 등록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저작권법에는 종전부터 “건축물에 관한 도면(이하, “건축설계도면”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을 건축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sup>6)</sup> 그 건축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법에 건축물의 형상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법은 ‘건축물에 관한 도면’과 그 도면에 따라 완성된 건축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의장법에서는 종전부터 물품에 한정된 디자인만을 보호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동식 건물(예, 이동식화장실, 이동식매점 등) 등의 동산에 한정하여 의장이 등록되었으며, 개정법에 의하여 물품 이외에

3) 日本経済産業省・特許庁 産業競争力とデザインを考える研究会, 『デザイン経営』 宣言 別紙 “産業競争力の強化に資する今後の意匠制度の在り方”, 2018. 5. 23.

〈[https://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gi/sangyo\\_design/pdf/011\\_02\\_00.pdf](https://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gi/sangyo_design/pdf/011_02_00.pdf)〉, 검색일: 2022. 8. 5.

4) 日本特許庁, 『令和元年法律改正(令和元年法律第3号) 解説書』, 第1章(意匠の定義の見直し, 2019. 3, 74頁.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kaisetu/2019/2019-03kaisetsu.html>〉, 검색일: 2022. 8. 2.

5) 日本経済産業省・特許庁 産業競争力とデザインを考える研究会, 앞의 선언(주3), 11頁; 神谷由紀, “令和元年改正意匠法施行後の状況について”, 『特許研究』71号, 2021, 77頁.

6) 日本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2조 제15호(口목).

도 “건축물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자의 법조문 해석만으로 보면, 용어상 도면과 디자인이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양자는 넓은 의미에서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의장법이 저작권법의 창작성(저작물성) 판단과 달리 건축물의 시각성 및 심미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호대상의 중복 문제와 존속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종전의 일본 의장법과 보호대상이 동일하므로 부동산에 고정된 건축물을 물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부동산에 고정된 건축물 및 그 설계도서(도면)는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및 그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일본 의장법에 의한 건축물디자인 및 건축물 내장디자인의 보호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 또는 도면의 법적보호와 관련하여 일본 의장법의 제도를 검토하고, 동 개정 의장법의 시행 2년간 건축물디자인 및 건축물 내장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여 본다.

## II. 건축물의 디자인보호제도의 도입

### 1. 건축물디자인

#### (1) 건축물을 포함하는 디자인의 정의 규정

개정전 일본 의장법에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을 디자인

이라고 정의하였으므로 동산에 해당하는 이동식 구조물만이 보호대상이 되었다. 개  
정법에서는 물품이외에도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디자인에 해당하  
다고 정의 규정에 추가<sup>7)</sup>함으로써 건축물디자인을 의장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로서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건축  
물과 혼동을 일으키는 건축물디자인,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서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건축물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sup>8)</sup>

일본에서는 그동안 건축물의 디자인보호와 관련해서 의장법 제2조 제1항에서 말  
하는 “물품”에 부동산이 포함되는가 하는 형태로 문제가 되었다. 학설상으로는 “물  
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지만,<sup>9)</sup> 일본특허청 및 재판소(이하,  
“법원”이라고 한다)의 실무<sup>10)</sup> 및 그 운용상으로는 물품이 동산에 한정된다고 하여  
부동산을 디자인보호대상에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다.<sup>11)</sup>

다만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산으로서 조립주택(組立家  
屋)<sup>12)</sup> 및 조립주택 내부형상의 부분디자인<sup>13)</sup>, 조립건물(組立建物), 조립터널(組立  
トンネル), 조립교량(組立橋梁), 방파제구조물본체(防波構造物本体)는 이동성이 있  
는 「물품」으로 보고 다수의 의장권이 등록되었다. 특히 일본특허청은 2006년 의

7) 일본 의장법 제2조 제1항(이 법률에서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형상 등”이라고 한다), 건축물(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등 또는 화상(기계조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또는 기구가 그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서 표시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본 의장법 제5조 제2호(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는 의장) 및 제3호(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형상 및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서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되는 의장 또는 화상의 용도에 있어서 불가결한 표시만으로 되는 의장).

9) 青木大也, “空間デザインの保護-建築物の意匠と内装の意匠に関する若干の検討-”, 『日本工業所有權法学会年報』No.43, 2020, 83頁.

10) 大阪高等裁判所 平成16年9月29(2004. 9. 29.) 平成15年(ネ)3575号.

11) 日本特許庁, 『工業所有權法(産業財産權法)逐条解説(第20版)』, 日本發明推進協會, 2017, 1154頁; 青木大也, 앞의 논문(주9), 83頁.

12) 東京地方裁判所 令和2年11月30日(2020.11.3.) 平成30年(ワ)26166号 판결에서는 “組立家屋”을 물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13) 日本意匠登録 第1567648号.

장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내부의 내장이 물품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동성이 없는 토지에 고정된 부동산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내부의 내장디자인은 의장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건축 및 설계디자인 산업계로부터 인력과 자금투자로 창작된 건축물관련 디자인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sup>14)</sup> 또한 일본의 디자인등록이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에서 가장 낮다는 비판도 있었다.<sup>15)</sup>

따라서 일본정부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브랜드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일본산업구조심의회회의 정책제언을 받아들이고, 한편 일본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sup>16)</sup> 동산의 물품 이외에도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도 디자인에 포함된다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다.

개정 일본 의장법에는 건축물을 디자인등록의 대상물품에 포함시켜 의장권으로 보호하면서도 건축물이 무엇이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특허청의 「의장심사기준<sup>17)</sup>」에는 의장법상의 건축물디자인을 구성하는 대상요건으로는 (1) 토지의 정착물(定着物) 일 것<sup>18)</sup>, (ii) 인공구조물일 것(토목구조물 포함)<sup>19)</sup>의 2가지

14) 의장권 침해소송건수는 다른 지적재산소송 건수에 비하여 매우 적다(最高裁判所事務総局行政局, “令和元年度知的財産権関係民事・行政事件の概況”, 『法曹時報』第72卷 第10号, 2020, 75頁).

15) 日本特許庁, 『特許庁ステータスレポート2021』 No.23, 2021, 41頁.

16) 青木大也, 앞의 논문(주9), 85-86頁.

17) 日本特許廳, 「意匠審査基準」, 意匠審査基準, 2021. 3. 31, 第IV部 個別の意匠登録出願, 10頁.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shinsa\\_kijun/index.html](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shinsa_kijun/index.html)〉, 검색일: 2022. 7. 1.

18) 토지정착물에 해당한다는 용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日本特許廳, 위의 意匠審査基準(주17), 11頁).

(a) 토지에 정착되지만, 동산으로 취급되는 되는 것(예: 정원등(庭園灯))

(b)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가설물(예: 가설텐트(仮設テント))

(c) 부동산의 등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산으로 거래되는 경우(예: 선박(船舶), 항공기(航空機), 캠핑카(キャンピングカー))

19) 인공구조물일 것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日本特許廳, 앞의 意匠審査基準(주17), 11頁)

(a) 人工的なものでないもの(인공적인 것이 아닌 것)

예: 자연의 산(自然の山), 자연의 바위(自然の岩), 자연 수목(自然の樹木), 자연 하천(自然の河川), 자연 폭포(自然の滝), 자연 사구(自然の砂浜)

(b) 사람의 손이 가해지지 않는 것, 자연물이나 지형 등을 디자인의 주된 요소로 하고 있는 것  
예: 골프코스(ゴルフコース)

(c) 토지 그 자체 또는 토지를 조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란 평면 또는 경사면 등의 지형에 관계없이 해저 및 호수저면을 포함하는 것이고, 정착물이란 계속적으로 토지에 고정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의장법상 건축물은 건축기본법상 건축물의 정의보다 넓은 것으로 해석하여 “건축된 물체”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20)</sup> 따라서 의장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건축물로서는 상업용 건축물, 주택, 학교, 병원, 공장, 경기장, 다리, 전파탑 등이 있다.<sup>21)</sup> 다만, 건축물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이나 빌딩군, 도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건축디자인으로 평가되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sup>22)</sup>

## (2) 등록 건축물디자인의 실시 범위

건축물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그 등록 건축물디자인의 의장권 보호를 위하여 독점배타적 권리의 실시행위를 의장법에 명문화하였다. 즉 등록 건축물디자인의 실시범위는 “건축물의 건축, 사용, 양도 또는 대여,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의장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 건축물디자인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한 청약하는 행위에도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일본의장법에 등록 건축물디자인의 실시범위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보호범위와 구분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즉 일본저작권법에 의하면, “건축저작물(建築の著作物)”이란 “건축에 관한 도면에 따라서 건축물을

20) 日本特許廳, 앞의 意匠審査基準(주17), 10頁.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shinsa\\_kijun/index.html](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shinsa_kijun/index.html)〉, 검색일: 2022. 7. 1.

21) 日本特許廳, 앞의 意匠審査基準(주17), 10頁.

22) 高林龍外2, 『年報知的財産法 2019-2020』, 日本評論社, 2019, 34-35頁; 青木大也, 앞의 논문(주8), 87頁.

완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sup>23)</sup> 저작권자는 건축도면을 창작하고 그 도면을 근거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건축물이란 일반적 건축물 이외에도 다리, 고속도로, 정원, 공원도 포함된다는 견해와 구조물 일반이 아니라 토지에 장착되는 공작물 중에서 기둥 및 지붕, 벽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물로 한정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sup>24)</sup> 또한 저작권법에는 “건축저작물을 건축에 의해 복제(복제권)하고 또는 그 복제물(건축물)의 양도에 의해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전시권)<sup>25)</sup>”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는 건축물의 복제권이나 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건축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sup>26)</sup>

이와 같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은 복제권과 전시권을 제외하고 저작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장권법에는 “건축물의 건축, 사용, 양도 또는 대여,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디자인의 건축산업 측면에서 보면, 의장권의 실시범위가 저작재산권의 권리범위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 (3) 건축물디자인의 간접침해

일본 의장법에는 건축물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 권리행사의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건축물을 물품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함으로써 직접침해 규정이 적용되고, 이와 더불어 건축물디자인의 간접침해 규정을 아래와 같이 확대 개정하여 건축물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첫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건축물의 건축에만 사용하는

23)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제(ロ)목(建築に関する図面に従つて建築物を完成すること).

24) 高林龍, 『標準 著作権法(第2版)』, 有斐閣, 2018, 53頁.

25) 일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建築の著作物を建築により複製し 又はその複製物の譲渡により公衆に提供する場合).

26) 田村善之·高瀬亜富·平澤卓人, 『ロジスティクス 知的財産法 II 著作権法』, 信山社, 2014, 268-269頁.



물품 또는 프로그램이거나 프로그램기록매체 등을 업으로서, (i) 해당 건축에만 사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이거나 프로그램기록매체 등의 제조, 양도, 대여, 수출,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ii) 해당 건축에만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의 작성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또는 그 청약을 하는 행위는 의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7)</sup>

둘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건축물의 건축에만 사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이거나 프로그램기록매체 등(이들이 일본 국내에 있어서 넓게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에 있어서,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시각을 통하여 미감의 창출에 불가결한 경우, 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인 것 또는 그 물품, 프로그램이거나 프로그램기록매체 등이 그 디자인의 실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업으로서, (i) 해당 건축에만 사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이거나 프로그램기록매체 등의 제조, 양도, 대여, 수출,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ii) 해당 건축에만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의 작성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또는 그 청약을 하는 행위는 의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8)</sup>

셋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건축물을 업으로서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행위는 의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9)</sup>

이와 같이 건축물을 물품과 같이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추가하여 건축물디자인을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킴과 더불어 그 등록 건축물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건축물의 건축에만 사용하는 물품 또는 프로그램이거나 프로그램기록매체”를 제조 또는 양도, 대여, 수출,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sup>30)</sup> 이러한 규정은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물건뿐

27) 일본 의장법 제38조 제4호 제(イ)목 및 제(ロ)목.

28) 일본 의장법 제38조 제5호 제(イ)목 및 제(ロ)목.

29) 일본 의장법 제38조 제6호.

만 아니라 건축물디자인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프로그램이 CD 등과 같은 프로그램기록매체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경우까지를 간접침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축디자인이 의장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으로 작성되거나 그 작성된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건축디자인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 2. 내장디자인

건축물을 물품과 같이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축물 내부를 나타내는 디자인을 내장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내장디자인은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포함하여 통상의 디자인출원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벌 물품디자인(제7조)’과 함께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예외의 디자인출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내장이란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의 내부설비 및 장식”이라고 특정하고, 그 “내장을 구성하는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과 관련된 디자인은 내장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킬 때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sup>32)</sup>는 규정을 의장법에 새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건축물 관련 복수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 벽, 마루, 장식품 등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고, 이를 건축물의 내장디자인으로 의장권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sup>33)</sup> 다만, 복수의 물품형태로 구성되는 내장디자인을 의장권으로 보호

30) 藤本一, “意匠法における間接侵害の規制対象”, 『パテント』Vol. 75 No. 3, 2022, 79頁.

31) 그러나 건축물디자인의 간접침해 규정과 관련하여 전용품 판단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青木大也, “意匠法改正をめぐる諸問題(2)”, 『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60号, 2021, 171頁; 藤本一, 앞의 논문(주30), 78).

32) 일본 저작권법 제7조의2(내장의장)(第八条の二(内装の意匠) 店舗 事務所その他の施設の内部の設備及び装飾(以下「内装」という。)を構成する物品 建築物又は画像に係る意匠は「内装全体として統一的な美感を起こさせるときは「一意匠として出願をし「意匠登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33) 내장디자인(内装意匠)의 예시는 아래와 같이 복수의 물품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日本特許廳, 「令和元年意匠法改正の概要」, 意匠制度企画室, 2021. 3, 11頁).

를 받기 위해서는 내장 전체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키는 경우에 의장권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Ⅲ. 건축물디자인의 출원·등록과 심사기준

#### 1. 건축물디자인과 내장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현황

건축물디자인 보호제도가 도입된 후 약 2년간(2020. 4. 1 - 2022. 6. 1) 건축물디자인 과 내장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출원 1,134건이고 등록이 767건으로 67.7%가 등록되었다.<sup>34)</sup>

<표 1> 건축물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

구분	출원 건수	등록 건수	등록률(%)
건축물디자인	735	537	73.1
내장디자인	399	230	57.6
(소계)	1,134	767	67.7

※ 등록 건수는 디자인공보 발행을 기준으로 산출

※ 등록은 출원 후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건축물디자인은 일본의장분류(日本意匠分類) L 그룹(건축물 및 토목건축용품)에 속하는 것으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35)</sup> 이



34) 日本特許庁, 「改正意匠法に基づく新たな保護対象等についての意匠登録出願動向」, 審査第一部意匠課, 2022. 6. 15, 1-2頁.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seidogaiyo/document/isyou\\_kaisei\\_2019/shutsugan-jokyo.pdf](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seidogaiyo/document/isyou_kaisei_2019/shutsugan-jokyo.pdf)>, 검색일: 2022. 7. 28.

중에서 L0-L3가 부여된 건축물<sup>36)</sup> 및 주택<sup>37)</sup> 등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상적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분류는 제외하였고,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의장에 관한 물품」의 란에 기재된 조립(組立)의 단어가 포함된 것도 제외한 통계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만, 건축물 및 그 관련 건축물내부의 디자인 연구개발과 그 결과의 창작물이 디자인권이라는 권리로 보호됨으로써 인간의 문화생활환경을 변화시킴과 더불어 편리성 및 실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도면에 대응하는 디자인에 의하여 건축되는 건축물을 의장법의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본에서는 앞으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근거로 건축물의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건축물디자인 및 그 내장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35) 日本特許廳, 「日本意匠分類」, 2020, L グループ 建築物及び土木建築用品는 다음과 같다.

L0 L1~L7に属さないその他の建築物及び土木建築用品(L1~L7에 속하지 않는 그 외 건축물 및 토목건축용품)

L1 仮設工事用品

L2 土木構造物, 土木用品

L3 建物 `屋外装備品等

L4 建築用構成品

L6 建築用内外装材

L7 建物用構造材 `枠材 等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bunrui/isyou\\_bunrui/nihon\\_ishou\\_bunrui\\_2021.html](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bunrui/isyou_bunrui/nihon_ishou_bunrui_2021.html)>, 검색일: 2022. 7. 28.

36) 「건축물」에 대한 일본의장분류는 L3-2000이고, L3-2000의 의장분류표시(D-Term 기호 및 표시)로는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에 속하는 물품은 “建物(건물), ビルディング(빌딩), オフィスビル(오피스빌딩), 商業ビル(상업빌딩), 超高層マンション(초고층아파트), タワーマンション(타워아파트), 興行場(공연장), 学校(학교), 体育館(체육관), 病院(병원), 劇場(극장), 観覧場(관람장), 集会場(집회장), 展示場(전시장), 百貨店(백화점), 市場(시장), ダンスホール(댄스홀), 遊技場(놀이터), 公衆浴場(공중목욕탕), 旅館(여관), 工場(공장), ホテル(호텔), 物流倉庫(물류창고), トレーラーハウス(trailer하우스)”로 구분하고 있다.

37) 건축물로서「주택」에 대한 일본의장분류는 L3-21, 그 하부에는 L3-21A(평지붕형) 및 L3-21A(집합주택형)이고, 그 L3-21의 의장분류표시(D-Term 기호 및 표시)로는 「주택」이라고 표시하고, 그 「주택」에 속하는 물품은 “組立て家屋(조립식가옥), 住宅, マンション(아파트), 共同住宅, 寄宿舎, 下宿”로 구분하고 있다.

## 2. 건축물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

### (1) 건축물 또는 내장의 용도 기재방법

건축물 관련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에 있어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란에 건축물 및 내장의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한다.<sup>38)</sup> 용도의 기재로부터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 상태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디자인과 관련되는 물품의 설명] 란에 건축물의 용도를 보완 설명하는 것을 추가할 수 있다. 만약 건축물 또는 내장이 건축물의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건축물이나 내장의 전체로서의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건축물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는 둘 이상의 “구체적인 용도”를 병기하여 기재할 수 할 수 없다.<sup>39)</sup> 다만, 다양한 업종의 임대업자(세입자)가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이나 오피스·점포 외에 호텔 기능을 겸비한 빌딩 등, 하나의 건물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란에 “복합 건축물”이라고 기재할 수는 있다.<sup>40)</sup> 즉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에 “복합 건축물”이라고 기재하고,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설명] 란에는 “이 건축물은 저층을 점포, 상층을 숙박시설로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용도”를 추가 기재할 수 있다.

건축물의 내장 관련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에 있어서는 우선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란에는 “○○의 내장” 또는 “○○용 내장”으로 기재하여야 한다.<sup>41)</sup> 또한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둘 이상의 “구체적인 용도”를 병기하여

38) 日本特許廳, 앞의 意匠審査基準(주17), 7頁.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shinsa\\_kijun/index.html](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shinsa_kijun/index.html)〉, 검색일: 2022. 7. 1.

39) 兼子直久·垣木晴彦·内藤拓郎·石井隆明, “実務ですぐに使える建築物・内装の意匠の3つのポイント”, 『パテント』Vol. 73 No. 11, 2020, 29頁.

40) 兼子直久·垣木晴彦·内藤拓郎·石井隆明, 위의 논문(주39), 29頁.

41) 예로, 일반적으로 용도 및 기능이 다른 복수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의 내장”이라는 기재에서는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호텔 객실의 내장” 또는 “호텔 로비의 내장”과 같은 내장 공간 자체의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여 기재해야 내장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있다.

기재할 수 없다.<sup>42)</sup> 다만, 오피스의 집무실과 같은 공간에 병설한 카페 등, 하나의 공간에서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내장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란에 내장의 주된 용도(용도에 주종 관계가 없는 경우는 내장 전체의 용도)를 기재하고, 각각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설명] 란에서 설명할 수 있다.<sup>43)</sup>

## (2) 건축물 또는 내장의 도면 작성방법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건축물 및 그 건축물 내장에 대해 도면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의장법에서의 도면은 물품에 관한 6면도 및 투시도, 사용상태도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축물 및 내장에 관한 도면에서도 물품의 도면과 같은 관점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건축물의 도면은 정투영도법에 의한 6면도가 필수는 아니지만, 건축물의 형상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여야 한다.<sup>44)</sup> 투시도법에 의한 표현도 허용되지만, 투시도만으로 정확한 형상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도면(상태도 등)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설명] 란에서 건축물의 형상 등을 특정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sup>45)</sup>

건축물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복수의 구성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위치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디자인 전체를 나타내는 도면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재해야 하고, 더불어 구성물 개개의 도면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sup>46)</sup> 또

42) 兼子直久·垣木晴彦·内藤拓郎·石井隆明, 앞의 논문(주39), 29頁.

43) 예를 들면,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란에는 “스포츠 체육관 트레이닝룸 내장”이라고 기재하고, [디자인 내장과 관련된 물품의 설명] 란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디자인은 카페와 빨래방이 병설된 헬스클럽의 트레이닝룸 내장이다.”라고 기재할 수 있다.

44) 건축물의 도면은 통상의 물품디자인 등록출원과 같이 [正面圖], [背面圖], [左側面圖], [右側面圖], [平面圖], [底面圖], [○○斷面圖], [○○切斷部端面圖], [○○擴大圖], [斜視圖]를 기재해야하고, 특히 건축도면에 사용되는 도면의 표시와 같이 [東側立面圖], [西側立面圖], [南側立面圖], [北側立面圖], [屋根伏圖], [○○平斷面圖], [○○立斷面圖] 등으로도 기재할 수 있다(日本特許廳, 앞의 意匠審査基準(주30), 8頁).

45) 도면의 크기는 가로 150mm, 세로 113mm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세로 또는 가로 길이의 건축물 등의 도면과는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분) 확대도 등을 이용하거나 형상이나 입체적 모양 등을 특정할 도면을 작도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한 건축물의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1실에 대한 부분의 형상 및 모양, 색채, 그리고 용도와 기능을 표현하는 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전체에 있어서의 위치 및 크기, 범위가 혼한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건축물 바깥쪽의 도면 개시를 생략할 수 있다.<sup>47)</sup>

내장디자인의 도면에는 벽, 바닥, 천장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외관의 개시를 기본으로 하는 건축물디자인과 달리 내장디자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설 내부의 형상 및 모양, 색채 또는 그들의 결합관계를 도면으로 개시하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3. 건축물 및 내장 디자인등록사례 및 심사기준

최근 일본특허청은 개정 의장법의 시행 후에 디자인등록된 건축물디자인 및 내장디자인의 등록 중에서 주요 사례를 발표하였다.<sup>48)</sup>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축디자인 2건 및 건축물 부분디자인 1건, 그리고 내장디자인 1건을 검토하여 본다.<sup>49)</sup>

#### (1) 「상업용 건축물」의 디자인등록 사례<sup>50)</sup> (건축물디자인)

【등록번호】디자인등록 제1671773호

【출원일(출원기준일)】2020. 4. 1

【디자인분류】L3-2000

46) 兼子直久·垣木晴彦·内藤拓郎·石井隆明, 앞의 논문(주39), 30頁.

47) 日本特許廳, 앞의 意匠審査基準(주17), 8-9頁.

48) 日本特許廳, 「改正意匠法に基づく新たな保護対象(画像・建築物・内装)の意匠登録事例について」, 意匠審査基準室, 2022. 1. 14.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kaisei\\_hogo.html](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kaisei_hogo.html)>, 검색일: 2022. 8. 2.

49) 건축물디자인 및 내장디자인의 디자인공보는 “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 (INPIT)” 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다(J-PlatPat (<https://www.j-platpat.inpit.go.jp/>)).

50) 日本特許廳, 「建築物の意匠登録事例集」, 意匠審査基準室, 2022. 1. 14, 1-2頁.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document/kaisei\\_hogo/kenchiku.pdf](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document/kaisei_hogo/kenchiku.pdf)>, 검색일: 2022. 8. 3.

【D-Term】 L3-2000VZB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상업용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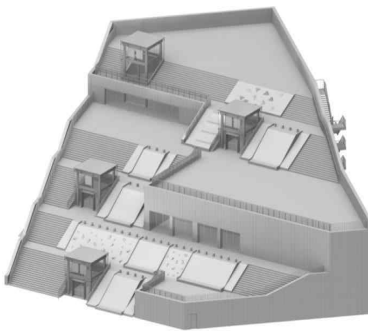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설명】

본 건축물은 그 내부를 의류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로 옥상에서 지상으로 넘어지는 듯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야외부를 높이 공간이나 휴식 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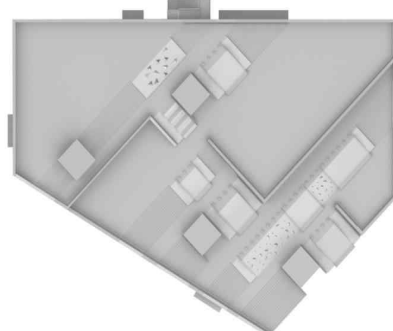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도면 표면에 나타난 질음과 열음은 입체표면의 형상을 나타내는 질음과 열음이다. “투명부를 나타내는 참고 사시도” 및 “투명부를 나타내는 참고 좌측면도”에서 청색으로 착색한 부분은 투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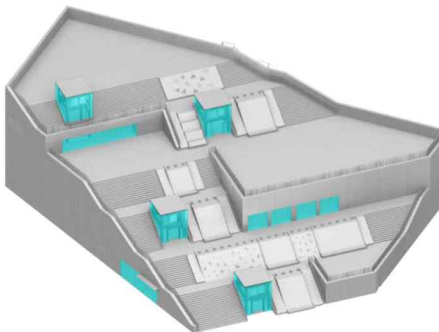
[사시도]



[사시도]



[투명부를 표시하는 참고 좌측도]



[실시에 참고 이미지도]





위의 [상업용 건축물]은 판매 점포용 건물이 옥상에서 지상으로 넘어지는 듯한 형상이고, 그 야외부를 놀이공간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자인이다. 의장법의 보호대상인 건축물디자인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도면은 저작권법상의 건축설계도면과는 차이가 있지만, 각 도면에 의하여 건축된 최종 건축물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건축물디자인은 [투명부를 표시하는 참고 좌측도] 와 같이 투명부를 가지고 있고, 이를 도면에 질음과 열음으로 입체표면의 형상을 도시하고 있는 점이 일본 의장법상 디자인등록요건인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創作非容易性)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디자인등록된 것으로 생각된다.

## (2) 「아파트(맨션)」의 디자인등록 사례<sup>51)</sup> (건축물디자인)

【디자인번호】 디자인등록 제1673701호

【출원일(출원기준일)】 2020. 4. 1

【디자인 분류】I3-2000

【D-Term】 I3-2000VZB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맨션(아파트)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설명】

본 물품은 현관 층과 일부를 제외하고 현관 층보다 상층에 설치된 아파트 층을 가지고, 그 아파트의 각 층에 적어도 하나의 호수(住宅戸)가 설치된 아파트이다. 현관 층은 상하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에는 정면 쪽에서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제1 현관이 설치되어 있고, 하층에는 후면 쪽에서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제2 현관이 설치되어 있다. 제1 현관 상방에서 제2 현관 상방에 걸쳐서는 건축물의 좌측면을 돌도록 하여 현관 차양막이 씌워져 있다. 현관 층 아래층에서 아파트 최상층까지는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에 의해 오갈 수 있으며, 옥상까지는 비상계단에 의해서만 오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비상계단을 피복하는 벽은 옥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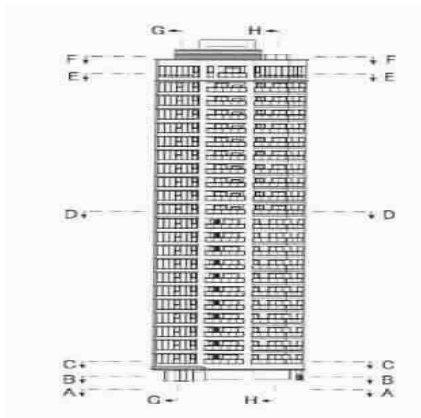
51) 日本特許廳, 앞의 建築物の意匠登録事例集(주50), 6-10頁.

돌출된 옥탑집과 일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다. 비상계단은 건축물 후면에 돌출되어 있다. 아파트 층은 정면과 우측면 사이의 모서리 부분이 연결된 상태로 되어 있으며, 해당 모서리 부분은 최상층을 제외한 각 층에서 발코니로 되어 있다.

### 【디자인의 설명】

참고정면도, 참고배면도, 참고좌측면도, 참고우측면도, I-I·J-J 부분확대도 1, K-K·L-L 부분확대도 1, 아파트 하부의 좌측면 및 정면을 내려다보는 참고사시도 2, 맨션 상부의 정면 및 우측면을 올려다보는 참고사시도 2에서 청색으로 착색된 부분은 투명부분이다. I-I·J-J 부분확대도 2에서 적색으로 착색된 부분은 제1 현관문이다. K-K·L-L 부분확대도 2에서 적색으로 착색된 부분은 제2 현관문이다. 맨션 하부의 좌측면 및 정면을 내려다보는 참고사시도 2에서 인출선을 이용하여 제1 현관 및 제2 현관의 위치를 나타낸다. 각 그림에서 두 점 쇠선은 지면을 나타내는 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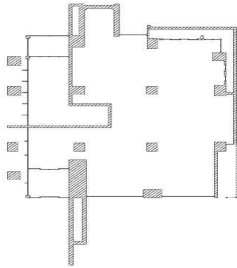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B-B선 확대 단면도]



[K-K · L-L부분 확대도]



위의 [맨션(아파트)]은 현관이 상하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층 정면 쪽에 출입문(제1 현관), 하층 후면 쪽에 출입문(제2 현관)이 설치되는 것을 요부로 하고 있다. 특히 제1 현관 상방에서 제2 현관 상방에 걸쳐서 건축물의 좌측면을 돌도록 하는 특징이 있고, 또한 맨션 상부의 정면 및 우측면을 올려다보는 참고사시도 2에서 청색으로 착색된 부분이 투명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디자인이 신규성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창작비용이성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건축디자인의 단면도 및 확대도를 보면, 저작권법상의 건축저작물에서 건축시공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단면도나 확대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의장법에서 아파트시공에 필요한 건축물디자인으로서의 도면은 아파트를 하나의 물품으로 간주하고, 그 물품의 형상 및 모양 등을 시각적이고 미감적으로 도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된 아파트의 건축디자인권의 권리행사는 그 아파트디자인(도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디자인(도면)과 같이 건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주택」의 디자인등록 사례<sup>52)</sup> (건축물 부분디자인)

【등록 번호】 디자인등록 제1680008호

52) 日本特許廳, 앞의 建築物の意匠登録事例集(주50), 18-20頁.

【출원일(출원기준일)】2020.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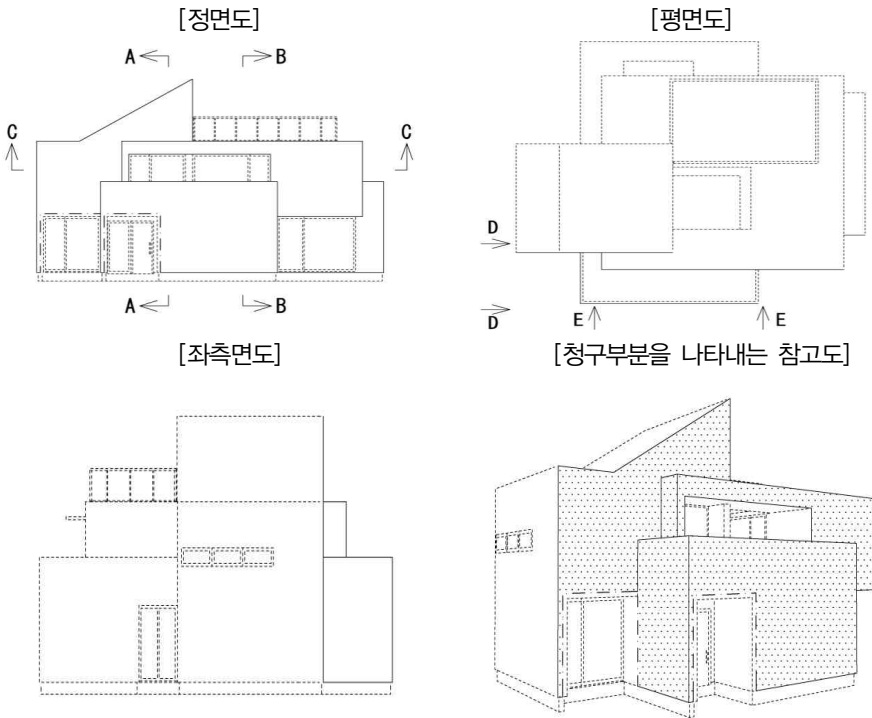
【디자인 분류】 I3-21

【D-Term】I3-21VZA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주택

【디자인의 설명】

실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다. “청구부분을 나타내는 참고도 1” 및 “청구부분을 나타내는 참고도 2”에서 망점부(網點部)는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다. 일점쇄선(一點鎖線)은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밖의 부분과의 경계만을 나타내는 선이다. 중량물에 대한 저면도는 생략한다. 배면도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다.



위의 [주택]의 디자인은 토지에 고정된 건축물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사례이다. 위 등록 건축물의 부분디자인은 주택 전체의 도면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선으로 도시된 부분만이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부분디자인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물품의 특정부분만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전 의장법에는 물품의 특정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보호하여왔지만, 주택이나 아파트 등과 같이 토지에 고정된 건축물을 물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현행 의장법에는 건축물을 물품과 같은 개념으로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위의 「주택」에 관한 특정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된 것이다.

#### (4) 「아파트 내장」의 디자인등록 사례<sup>53)</sup> (건축물실내의 내장디자인)

【등록번호】 디자인등록 제1671961호

【출원일(출원기준일)】 2020. 4. 1

【디자인 분류】 I3-7

【D-Term】I3-7VZA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맨션(아파트) 공용부의 내장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 설명】

본원 디자인은 아파트 거주자나 아파트 방문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공용부의 내장으로 옥외의 고정된 부수물인 정원부 및 조경부(植栽部)를 포함한다. 아파트 공용부 중 제1벽, 제2벽, 제3벽으로 둘러싸인 영역에는 소파 및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다. 소파는 유리창을 갖춘 제3벽 쪽으로 향하는 시선을 확보하기 쉬운 방향으로 배치됐다. 제3벽은 제1벽과 제2벽 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의 기둥과, 상기 유

53) 日本特許廳, 「内装の意匠登録事例集」, 意匠審査基準室, 2022. 1. 14, 3-7頁.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document/kaisei\\_hogo/naiso.pdf](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document/kaisei_hogo/naiso.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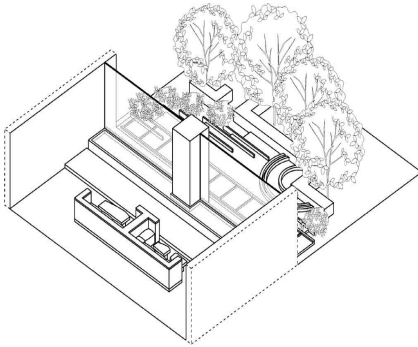
검색일: 2022. 8. 3.

리창을 구비한다. 유리창은 기둥과 제1벽 및 제2벽과 도시하지 않은 천장에 의해 형성된 개구부에 불박이창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제3벽의 실내측(왼쪽)에는 해당 제3벽을 따라 수반(水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수반은 소파 및 테이블이 배치된 하단 바닥부보다 위쪽에 위치하며, 또한 제1벽에서 제2벽에 걸쳐 길게 형성되어 있다. 하단 바닥부 우측에는 하단 바닥부보다 한 단계 높은 상단 바닥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상단 바닥부도 수반과 마찬가지로 제1벽에서 제2벽에 걸쳐 길게 형성되어 있다. 수반과 상단 바닥부 사이에는 수반으로부터 넘치는 물을 받는 배수구가 형성되어 있다. 제3벽의 옥외측(오른쪽)에는, 얇은 여울·물무늬(細流·水紋)를 본뜬 상기 정원부와, 이 정원부를 둘러싸도록 하여 조정되는 상기 조경부(조정하는 영역)가 설치되어 있다. 정원부는 실내측 상단 바닥부보다 위쪽에 위치함과 동시에 수반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공용부의 방문지는 소파에 앉아 제3벽 쪽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실내측 수반과 야외측 정원부가 동시에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이로 인해 방문지는 마치 실내측 수반과 야외측 정원부가 연속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더욱이 정원부는 조경부로 둘러싸여 있어 방문자들은 야외 조경부의 경치와 정원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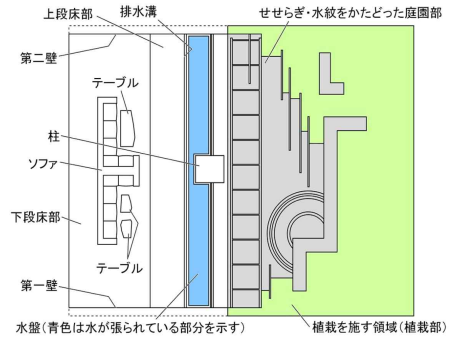
### 【디자인의 설명】

실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부분의장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다. 옥외 영역을 나타내는 참고 평면도에서 적색으로 착색된 부분은 옥외 영역이다. 각 부의 명칭을 나타내는 참고평면도 및 각 부의 명칭을 나타내는 참고사시도 1, 2에서 녹색으로 착색된 부분은 조경(植栽)을 하는 부분이고, 청색으로 착색된 부분은 물이 차 있는 부분이며, 하늘색으로 착색된 부분은 투명한 유리창이 설치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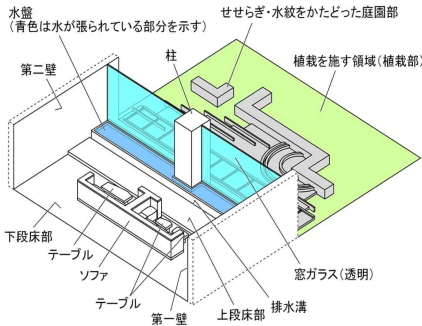
[정면 좌방향의 사시도]



[각 명칭을 나타내는 참고 평면도]



[각 명칭을 나타내는 참고 사시도]



[실시 상태도]



위의 「아파트 내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건축물 실내의 도면과 그 시공된 실내 공간은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었지만, 현행 의장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내장디자인으로 등록된 사례이다. 물론 저작권법상의 도면과 의장법상의 도면은 건축물 의 시공을 목적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법상의 건축물실내 도면은 시공을 하기 위하여 실내구조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형상의 크기, 규격, 재질 등을 도면으로 도시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의장법상의 도면은 시공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내장을 물품적 관점에서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실내의 외형을 도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의장법과 저작권법 상 각 도면의 도시 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각 도면에 의하여 시공된 결과물로서의 건축물실내

의 내장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법의 도면에 의하여 시공된 건축물실내의 내장이 동일한 것으로만 보면, 양법에서 건축물실내의 내장이라는 보호객체는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본 「아파트 내장」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법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이유는 저작권법의 무심사 보호와 달리 심사절차에 의하여 의장권이 설정되므로 권리의 법적안정성이 있고, 독점적 권리로서 적극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 IV. 건축물 보호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1. 건축물의 디자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 통일화 문제

일본정부가 의장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건축물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함하였지만, 개정 의장법에는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일본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토지의 정착물(定着物)<sup>54)</sup>을 건축물디자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일본 건축기본법상 건축물<sup>55)</sup>의 정의보다 넓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일본 의장법의 건축물디자인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의 건축물디자인 보호 제도와 비교·검토하여 본다.

미국에서는 건축물디자인 및 그 내장디자인 모두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54)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는 용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日本特許廳, 앞의 意匠審査基準(주17), 11頁).

(a) 土地に定着させ得るが、`動産として取引されるもの(토지에 정착되지만, 동산으로 취급되는 되는 것)

예: 정원등(庭園灯)

(b) 一時的に設営される仮設のもの(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가설물)

예: 가설텐트(仮設テント)

(c) 不動産等の登記の対象となり得るが、`動産として取引されるもの(부동산의 등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산으로 거래되는 경우)

예: 선박(船舶), 항공기(航空機), 캠핑카(キャンピングカー)

55) 일본 건축기본법 제2조 제1호



볼 수 있다. 미국특허법 제171조(a)의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라는 문언을 해석하면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56)</sup><sup>57)</sup> 따라서 건축물디자인은 디자인특허로 등록이 가능하고<sup>58)</sup>, 특히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특허출원서 및 그 도면의 기재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특허출원과 동일하다.<sup>59)</sup> 다만, 건축물의 주변에 배치되는 부속물이 포함되어서 건축물 디자인특허로 등록될 수 있다거나 제외된다는 규정도 없고 또한 등록된 사례도 찾을 수 없지만,<sup>60)</sup> 복수의 구성물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은 “사회통념상 일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sup>61)</sup>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특허출원서 및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도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외관의 형태가 주로 도시되어 있고, 내부구조를 나타내는 도면을 기재하지 않아도 등록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실내의 부분디자인도 디자인특허등록이 가능하다.

EU에서는 유럽공동체디자인규칙(CDR)에 의하여 건축물디자인 및 그 건축물의 내장디자인 모두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즉 CDR 제2조(2)(a)에는 그 보호대상인 design에 대해서, “the appearance of the whole or a part of a product …”라고

56) 青木大也, 앞의 논문(주9), 84頁.

57) In re Hadden, 20 F.2d 275 (D.C. Cir. 1927)에서는 미국특허법 제171조(a)의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 문언과의 관계에서 “크기나 이동이 곤란한 것은 결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grandstand (출원인측이 말하는 ‘Modern Athletic Stadia’)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을 취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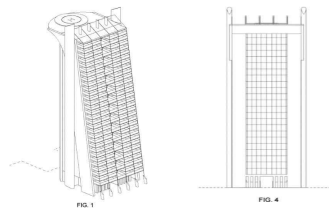
58) 미국의 건축물이 디자인특허 등록사례

Patent No. : US D804,055 S

Date of Patent : Nov. 28, 2017

Title : Building

Floor plan :



59) 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新たなタイプの意匠及び部分意匠の審査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令和元年度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2020. 1. 2, 77-79頁.

60) 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위의 調査研究報告書(주59), 77頁.

61) 藤本一, “意匠法令令和元年改正の文脈”, 『パテント』 Vol. 74 No. 8, 2021, 101頁.

정의하고, 제2조(2)조(b)에는 product에 대하여 “any industrial or handi-craft item”이라고 정하고 있다.<sup>62)</sup> 특히 product의 의미는 매우 넓게 해석되어 건축물디자인 및 그 건축물실내의 내장디자인이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63)</sup>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첨부해야할 도면은 그 건축물을 나타내는 도면 및 사진을 말하는 것이고, 시공을 위한 건축설계도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등록공동체디자인출원에 관한 심사가이드라인 4.1.1).<sup>64)</sup> 왜냐하면 건축설계도면만으로는 건축물이라는 최종 제품의 외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65)</sup>

반면, 현행 우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종전 일본 의장법과 같이 물품에 한정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가능성이 있는 동산만을 물품으로 간주하여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에 고정된 정착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물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디자인 및 그 건축물실내의 내장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미국 특허법 및 유럽공동체디자인규칙(CDR), 일본 의장법에는 건축물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보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디자인 등록출원서의 기재 및 도면), 심사기준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도면을 구성요소로 보호하고 있지만, 그 도면을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건축물의 외형을 도시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통일화되어 있지

62)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Rules(CDR; COUNCIL REGULATION(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Article 1 Community design]

2. A design shall be protected:

(a) by an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if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b) by a “registered Community design”, if registered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63) 青木大也, 앞의 논문(주9), 84-85頁.

64) 왜냐하면 건축설계도면만으로는 건축물로서의 최종제품의 외관을 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앞의 調査研究報告書(주59), 79頁).

65) 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 앞의 調査研究報告書(주59), 77-79頁.

않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외형적 도면을 디자인으로 창작한 자와 건축설계도면을 창작한 자(건축사)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명문 규정이나 지침이 국제적으로 통일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등록된 건축물 디자인권자의 권리행사와 관련해서는 건축디자인(디자인권자)가 작성한 건축물디자인의 구성요소인 도면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통(거래)될 수 있고(유통한 자), 그 도면을 근거로 건축시공을 위하여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고(건축사), 그 건축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고(건설사), 시공된 건축물을 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건축주) 등의 다양한 주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권리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건축물의 디자인권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동시에 건축사(저작권자)가 설계한 건축도면에 의하여 시공된 건축저작물과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권의 권리행사 규정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의 통일화가 필요하다.

최근 건축물 및 그 실내공간의 디자인은 인류의 문화발전과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적용된 생활공간의 편리성과 행복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창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법제통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본 의장법상의 건축디자인 및 내장디자인의 권리보호제도는 우리나라 및 미국, EU 등이 국제적 통일화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 2.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충돌문제와 그 시사점

일본 저작권법에는 건축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sup>66)</sup> 그 건축저작물이란

66) 일본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건축에 관한 도면에 따라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건축에 관한 도면은 건축설계도면에 해당하고, 그 건축설계도면에 의해 시공된 건축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의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미적형상으로 표현된, 즉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미적감상(美的鑑賞)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sup>67)</sup> 만약 동일한 건축물을 다른 재질 또는 기능적·실용적으로 다르게 시공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관이 동일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sup>68)</sup> 이와 같이 외관의 미적감상이 있는 건축물은 그 건축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된 것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그 건축물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이를 도면으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된다.

여기서 일본 저작권법상의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사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적감상을 설계로 표현한 도면으로 건축인허가에 필요한 것이지만, 의장법상의 도면은 건축사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디자이너에 의하여 건축물의 형상 및 모양, 색채를 시각성과 미감성을 가지도록 도시한 도면으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건축설계도면 또는 의장법상의 도면에 의하여 시공된 건축물의 외형은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양법은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건축설계도면으로 시공된 건축물과 디자인권이 있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된 건축물이 최종 결과물로서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충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디자인권이 있는 도면을 근거로 건축물을 시공하려면, 건축법상 건축설계도면이 있어야 건축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실제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67) 茶園成樹, 『著作権法』, 有斐閣, 2014, 33頁.

68) 中山信弘, 『著作権法(第2版)』, 有斐閣, 2014, 93頁.

그러나 일본 의장법의 개정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외형적 디자인 및 그 건축물 실내디자인이 저작권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지만,<sup>69)</sup> 양법의 이중보호 및 충돌문제 등에 대한 보고서나 논문 등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저작권법이 건축시공을 위한 건축설계도면을 대상으로 하고, 의장법은 건축설계도면이 아니라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형상 및 모양, 색채를 도시한 디자인으로서의 도면이기 때문에 양법의 보호대상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저작권법이 건축설계도면과 이에 따른 건축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시각성과 미감성을 가지도록 도시한 도면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장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는 양법의 최종 완성품인 건축물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시공을 위한 건축설계도면'과 '건축물의 외관을 디자인으로 도시한 도면'을 각각 별개로 간주하여 양법의 보호 대상으로 특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창작에 관한 법적보호가 완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는 디자인 창작 강화라는 정책방향과 건축물의 창작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에의 도입에 대한 시사점

미국특허법이나 유럽공동체디자인규칙(CDR)에 의한 건축디자인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 의장법과 같은 취지로 건축물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본과 같이 저작권법의 건축설계도면과 의장법의 도면이 구성요소로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보호 강화 차원에서만 접근하여서는 않된다.

일본과 같이, 일본산업구조심의회의 정책제언을 통하여 양법의 보호대상이 다르

69) 青木大也, 앞의 논문(주9), 85-86頁.

다는 것을 전제로 접근하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상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으로서의 도면’은 건축시공에 의하여 완성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건축물이라는 보호대상이 동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권리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건축물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일본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물디자인이나 내장디자인을 보면, 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도면만으로 보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지만, 등록 건축디자인의 도면에 의하여 시공된 건축물의 외관(시각성과 심미성)은 건축저작물성이 있는 ‘건축도서’에 의하여 시공된 건축물(미적감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디자인보호법에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본 의장법과 같은 취지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 양법에 의한 이중보호와 그에 따른 권리행사 문제, 예로서 건축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도면)이 설정된 후에 저작권법상 독립창작성이 인정되는 건축저작물(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양자의 이중보호와 권리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일본은 의장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건축물디자인 및 내장디자인에 대해서도 물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의장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동 개정법의 시행 2년간 출원 및 등록된 건축디자인 및 내장디자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축디자인을 의장권으로 등록받기 위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도면은 일본저작권법상 건축설계도면과 차이가 있지만, 그 양자의 도면에 의하여 시공된 최종 건축물은 동일한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종 권리대상의 목적물이 건축물로 양자가 동일함에도 의장법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가 건축물의 외관 및 내장에 관한 디자인을 의장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디자인경영」수립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의장법으로 보호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의 보호제도를 보면, 미국특허법에서는 건축물을 디자인특허로 보호하고 있고, EU에서도 유럽공동체디자인규칙(CDR)에 의하여 건축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건축물이 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및 EU, 일본 등과 같이 건축물을 물품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본 의장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이중 보호 또는 권리충돌, 권리행사의 주체, 최종 대상물이 건축물이라는 동일성 등의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의장법을 개정하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점에 의문점이 있지만, 일본정부의 정책 방향은 「디자인경영」수립이라는 산업구조심의회 정책제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한 건축설계도면(저작권법)과 건축물의 외관을 디자인한 도면(의장법)을 각각 별도의 보호객체로 간주하여 의장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였지만, 단순히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보호대상을 다르게 하는 것보다는 건축물이라는 동일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양법의 보호대상 및 그 보호절차, 권리행사 등에 대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高林龍,『標準 著作権法(第2版)』,有斐閣,2018.
- 高林龍外2,『年報知的財産法 2019-2020』,日本評論社,2019.
- 中山信弘,『著作権法(第2版)』,有斐閣,2014.
- 田村善之·高瀬亜富·平澤卓人,『ロジステイクス 知的財産法 II 著作権法』,信山社,2014.
- 茶園成樹,『著作権法』,有斐閣,2014.
- 日本特許庁,『工業所有権法(産業財産権法)逐条解説(第20版)』,日本発明推進協会,2017.
- 日本特許廳,『令和元年法律改正(令和元年法律第3号)解説書』,2019. 3.
-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EUIPO
- 兼子直久·垣木晴彦·内藤拓郎·石井隆明,“実務ですぐに使える建築物・内装の意匠の3つのポイント”,『パテント』Vol. 73 No. 11, 2020.
- 藤本一,“意匠法令和元年改正の文脈”,『パテント』Vol. 74 No. 8, 2021.
- 藤本一,“意匠法における間接侵害の規制対象”,『パテント』Vol. 75 No. 3, 2022.
- 神谷由紀,“令和元年改正意匠法施行後の状況について”,『特許研究』71号,2021.
- 青木大也,“意匠法改正をめぐる諸問題(2)”,『知的財産法政策学研究』60号,2021.
- 青木大也,“空間デザインの保護-建築物の意匠と内装の意匠に関する若干の検討-”,『日本工業所有権法学会年報』No.43, 2020.
- 最高裁判所事務総局行政局,“令和元年度知的財産権関係民事・行政事件の概況”,『法曹時報』第72巻 第10号, 2020.
- 一般社団法人 日本国際知的財産保護協会,「新たなタイプの意匠及び部分意匠の審査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令和元年度特許庁産業財産権制度問題調査研究報告書, 2020. 1. 2.
- 日本経済産業省・特許庁 産業競争力とデザインを考える研究会, 『デザイン経営』宣言, 2018. 5. 23.
- 日本特許廳,「令和元年意匠法改正の概要」, 意匠制度企画室, 2021. 3.
- 日本特許庁,「改正意匠法に基づく新たな保護対象等についての意匠登録出願動向」, 審査第一部意匠課, 2022. 6. 15.
- 日本特許廳,「改正意匠法に基づく新たな保護対象(画像・建築物・内装)の意匠登録事例について」, 意匠審査基準室, 2022. 1. 14.
- 日本特許廳,「建築物の意匠登録事例集」, 意匠審査基準室, 2022. 1. 14.
- 日本特許廳,「内装の意匠登録事例集」, 意匠審査基準室, 2022. 1. 14.

日本特許庁,『特許庁ステータスレポート2021』No.23, 2021.  
日本特許廳,「意匠審査基準」, 意匠審査基準室, 2021. 3. 31.  
日本特許廳,「日本意匠分類」, 2020.

## ■ Abstract

# Legal Protection of 'Building Design' under the Design Act in Japan

Chihyun KWO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vised the Design Act to protect buildings protected by architectural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with design rights as the Japanes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s policy proposal. In the two years since the revised Design Act was implemented, the interest has been rising, with 1,134 applications and 767 registrations, with 67.7% registered, for building designs and interior designs.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designs of goods, defines buildings as belonging to designs for the same purpose as goods, and protects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that illustrate the appearance of buildings as designs, to the architectural desig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regulations.

The Design Act aims to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with the appearance of the shape, form, and color of the building, and the Japanese Copyright Act aims to drawings on the building(Architectural Plans), and there is a difference. Due to such a difference, since 'Architectural Design Drawings' were limited to be protected as architectural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the scope of protection was expanded by revising the Design Act. However, although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rawings, it can be said that the targets to be protected may be different, the buildings completed by the drawings of both can be the same. Therefore, in the case of being based on the building which is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both laws, double protection of design rights and copyrights may occur in the same building, and it is judged that conflicts between the two laws may arise in the exercise of rights.

As to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where the building is included in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such as the Japanese Design Act, the problems in Japan and the conflict with our copyright law will be thoroughly analyzed, and the introduction plan should be reviewed after analyzing not only the opinions of the industry, but also the US Patent Act (design patent) and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

70) Assistant Professor, KwangWoon Univ., Ph.D. in Law

Rules (CDR) etc, together.